광주시,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 속도 낸다

시립미술관·역사민속박물관·한국학진흥원 포화율 95% 넘어
기본계획·타당성 분석 전문 수행기관 선정…11월까지 용역

광주시가 산하기관 수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수장고 건립에 나선다.

광주시는 25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하기관 수장품의 수장 공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천587점의 작품을 보유한 시립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은 95%에 달하며 광주역사민속박물관도 424㎡ 규모의 수장고에 1만8천12점을 보유해 97%가 차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도 보유 작품 6만7천985점으로 수장고 포화율은 98%다. 김치박물관은 793점을 보유, 80%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 모두 개별시설의 수장고 부족으로 공간 활용과 수장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경우 최근 3년 간 수장품 증가량이 연평균 8천200점에 달하는 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확대될수록 수장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70년에는 이들 기관의 수장품이 52만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기관들의 수장품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 자원 전시·체험·연구를 아우르는 지역특화시설 건립으로 호남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건립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전담할 전문 수행기관으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했다.

전문 수행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산하기관 수장품 전수 분석, 재질별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부지 공모 절차 수행 ▲건립 규모 산정 및 건축 기본 구상 ▲통합수장품관리시스템 기본 구상 등을 연구한다.

광주시는 전문 수행기관의 연구 용역이 끝나면 사전 타당성을 분석해 투자심사 의뢰,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 시설물 건립을 위해 행정 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소장품의 재질, 종류, 특성에 맞춰 전문수장고를 증설하고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와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존처리과학실을 조성한다. 더불어 관련 분야 연구자와 시민의 유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공간을 구현한다.

특히 보존처리과학실은 개별 박물관·미술관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3D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정밀분사가공기 등 전문장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학예연구인력의 업무역량도 강화하게 된다.

광주시는 위탁받은 유물의 보존처리·복원·수리 등 지원 체계가 완성되면 종가를 비롯한 사택에 보존된 유물 기탁이 용이해져 호남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를 광주뿐 아니라 호남까지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일본제철 앞에서 사죄·배상 촉구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원고 유가족,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도쿄 일본제철 앞에서 징용 피해자 부모의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를 들고 징용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 가족은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8개 AI기업 '실증도시' 광주에 둥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에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둥지를 틀면서 AI 산업생태계가 보다 탄탄하게 다져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메타빌드, 로제타텍, 원더풀플랫폼, 한국버스방송, 아이메디신, 가온플랫폼, 칠로엔, 엔엑스 등 8개 인공지능 기업들과 175-18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이사, 조영진 로제타텍 대표이사, 황성택 원더풀플랫폼 부사장, 장강서 한국버스방송 대표이사, 강승완 아이메디신 대표이사, 조만영 가온플랫폼 대표이사, 조성인 칠로엔 대표이사, 남주현 엔엑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AI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AI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도시규모 실증환경 등을 통해 광주를 찾은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방향 논의

전남도 등 5개 시·도 광역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에 3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광역협의체'가 25일 지역에선 처음으로 전남에서 열렸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5개 시·도, 각 시·도 관광재단과 공사가 함께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광역협의체' 지역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역협의체는 지난 2월 문체부에서 구성돼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전남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오진숙 문체부 관광개발과장, 전남과 광주,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 관광부서 과장, 5개 시·도 관광 전담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도별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추진할 사업 방향을 정했다. 전남도는 대표 개발사업으로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을 발표했다.

신안의 '섬 식(食)문화'를 중심으로 음식관광 거점으로 키워 지역 먹거리를 연구하고 체험하는 센터와 야시장을 운영, 섬 여행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까지 4년간 총 4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검토 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진숙 문체부 과장은 "남부권 5개 시·도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남부권이 재도약할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은 전남에만 56개 사업에 총 1조3천억원을 쏟아 붓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 37개 사업 국비 111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10억원 ▲곡성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7억7천만원 ▲함평 공연 접목 야행관광공간 6억원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6억원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7억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5억원 ▲남서·남중권역 특화 진흥사업 4억2천500만원 등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이 대한민국 관광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남의 맛과 멋, 특색을 살려 하루빨리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노희용 前동구청장, 광주문화재단 대표 내정

市, 내달 23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광주시는 25일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사진) 전 광주시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2명을 추천받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을 적임자로 낙점했다.

노 내정자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문화수도정책관, 공보관, 문화관광정책실장을 거쳐 민선 5-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지냈다.

문화예술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조직 경영능력 및 경험 등이 풍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월5일 광주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